

윤석열 대통령, 울산 경제인간담회 참석

尹 대통령 "울산, 국가 경제 중추적 역할 하고 있어...정부 역량 결집해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3. 9일 울산항만공사에서 울산 지역 경제인과 지역대학 총장, 국회의원 등 2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60여년 동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기간산업을 이끌어왔고 우리 수출의 13%를 책임질 만큼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늘 기공식을 가진 S-OIL 사한 프로젝트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축 등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해 나가겠다."

수소차 안전인증센터와 전기, 수소차 핵심부품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선 산업에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전기, 수소,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먹거리도 적극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 경제인들은

울산시 우회도로 신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조선업 인력 확충, 중소기업 석박사 인재 확보, 설비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배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장관의 설명을 들은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은 "40년 교수 생활하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10번 넘게 참석했지만 참석자들의 질문에 주무장관이 일일이 매모하고, 답변하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권명호·이체익·서범수·박성민 의원은 "윤 대통령께서 당선 1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 지역을 찾아 민생경제를 챙겨주셔서 감격스럽다"면서, "나라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역 경제인들의 민원은 산업부와 중기부에 전달하면 속도감 있게 점검



윤석열 대통령, 울산 경제인간담회 참석.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 경제인들은 울산시 우회도로 신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조선업 인력 확충, 중소기업 석박사 인재 확보, 설비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 이차전지 핵심소재업체 고충 해결 위해 현장간담회 개최

전기차 배터리로 쓰이는 이차전지 음극재 관련 핵심소재 제조업체, 전기차시장 확대에 따른 공장증설계획에 발맞추어 대용량 전력 공급 희망

경기도가 전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을 직접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시화MTV에 입주해 있는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기업 대주전자재료(대표이사 임일지)에서 사업확장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해당 기업이 경기도에 고충을 접수하면서 이뤄졌다.

경기도 규제개혁과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시흥시 관계 공무원과 한국전력공사(인천본부·경인건설본부)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이동현도의원, 서범범·박소영 시흥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해당 기업은 전기차 배터리로 쓰이는 이차전지의 음극재 관련 핵심 소재를 개발해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공장증설계획에 필요한 340MW 대용량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에 전력수전에정통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송전선로 매설, 공사 인허가 관련 시흥시-한국전력공사 간 소송 진행에 따라 현재 적기 전

력공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이 타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감소 등 도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참석자들은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동현 경기도의회 의원은 "시화 MTV와 송도신도시 인근지역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등장과 데이터 센터 건립계획 등으로 최근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전력 공급 문제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고압송전선로 공사 관련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으며, 시흥시와 한국전력공사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주민설명회 개최 후에도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회의를 연내 개최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해양왕국 섬 지자체 함께 '번영하자', 울릉군-제주시 '맞손'

동해와 남해를 대표하는 섬 지자체인 울릉군과 제주시가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기 위해 맞손을 잡는다.

3월9일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강병삼 제주시장과 남한권 울릉군수는 양 지자체간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협약 후 울릉군과 제주시는 공동번영을 위해 행정, 경제, 문화, 환경, 복지, 관광, 축제 등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하고 직거래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배경에는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제주지역 해녀들이 울릉도와 독도 어장까지 진출한 인연을 시작으로 이어진 교류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11월 울릉군에서 열린 '울릉도 출어부인 기념비'의 복제본 제막식에 참석한 강 시장에게 남 군수는 해양산업 교류와 함께 문화, 교육, 환경, 관광 등 다양한 교류의사를 전달했고, 강 시장은 긍정적 검토 후 협약으로 이어졌다.



협약식에 앞서 이날 열린 울릉도-제주시 자매결연 조인식. 양 지자체간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였다.

9일 협약식을 가진 후 남 군수와 관계공무원은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4년 만에 열린 '제주 들불축제'에 참석해 첫 교류를 시작하면서, 독도박물관 상설전시관 운영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선진시스템(재활용 도움센터) 설치 등 제반사항 경험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자매결연식은 제주의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해 과거와 달리 실무팀 위주로 구성해서 참석했다.

남한권 군수는 "예전에 섬 지역은 가난과 고립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섬은 풍요와 치유, 여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다른 도서지역보다 거주와 관광 등 섬 지자체 중 완성형에 가까운 배울 점이 많고, 이번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현중·조강제/기자





울릉군 ULLUNG-GUN

봄여행, 즐길준비 되셨나요?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봄여행**

천혜의 자연과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울릉도·독도에서 자연이 선사하는 낭만과 즐거움을 느껴세요!!

새희망! 새울릉!

대구시의회, 사회환경 변화 대응, 저출생 극복 방안 모색

- 지난 10일(금), 「새시대 희망포럼」정책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저출생정책 벤치마킹, 대구지역 초저출생 대응방안 연구 추진상황보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은 지난 10일(금) 오전 11시,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대표 황순자, 간사 이성오, 김대현, 이재숙, 하중환, 정일균, 김재용, 윤권근, 김정욱, 박소영, 옥정미)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새시대 희망포럼」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청년정책, 인구정책, 저출산해소 정책과 지역일자리 정책 등 지역정책을 연구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지난해 9월에 12명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 결성되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맡아 진행할 정영태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팀장 및 연구진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포럼 대표인 황순자 의원은 “국가주도의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지역 수준의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저출생과 인구 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시흥시의회,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 기공식 참석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3월 10일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 기공식에 참석했다.

배곧동에서 열린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 기공식은 송미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임병택 시장, 국회의원 및 도의원, 문화예술 관계자, 아동돌봄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문화예술환경 인프라 구축과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공사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원활한 추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공식은 시흥시립합창단과 시흥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합동으로 꾸민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사업개요 및 추진 경과 보고, 기념사 및 축사, ‘성실·안전시공’ 선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2024년 하반기 개관 및 운영을 목



표로 건립되는 시흥시 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 14,299㎡의 규모로 공연장, 전시실, 커뮤니티센터,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준공 시 시흥시 최초의 전문공연장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극복하고 문화복지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회관은 연면적 3,260㎡의 규모에 어린이과학놀이 체험공간, 전문 과학관 2개관 및 옥외놀이터 등의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며 시의원들은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

립과 관련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했다.

송미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문화예술 분야를 보면 그 도시의 품격을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문화예술이 찬란하게 꽃피우고 아이들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우용기자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현장에서 탄소중립·공공의료 해법 모색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 더불어민주당·목포1) 소속 의원들이 지난 9일부터 10일, 이틀간 강진의료원과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포스코 광양제철소,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을 잇따라 방문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활동은 전남 서남권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강진의료원의 간호사 기숙사 신축현장을 점검하고,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및 여수 운동마을 주민건강영양향상조사에 대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실시했다.

강진의료원은 의료인력 충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방의료원으로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60실 규모의 간호사 기숙사를 신축 중이다.

의원들은 “강진의료원 기숙사가 간호사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자재비 인상 여파로 부실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환경산업진흥원을 방문한 의원들은 중장기 경영전략 중간 용역 보고를 청취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환경산업진흥원의 방향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한 직원 처우 개선, 전남 동부권 분원 설립, 탄소중립추진단·전라남도와의 협업 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제철공정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계획, 묘도 주민환경영향조사 경과 등을 보고받고, 포스코의 사회공헌과 탄소중립 관련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천을 당부했다.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은 “광양제철소와 불과 1.8km 거리에 있는 묘도지역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이 전무하고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획을 묻고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여러 협의 중이고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선국 위원장은 “전남 탄소배출

량 9천만 톤의 절반이 광양에서 나온다”며, “포스코 때문에 전남의 탄소중립 실현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ESG경영 관련 협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환경위는 10일 여수 미평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노후시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무장애시설, 안전에 관해서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지활동을 마친 최선국 위원장은 “보건복지환경 분야의 현안을 점검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해명기자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 ‘경상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국민의힘, 사천2)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0일 열린 제402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근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산업과 같은 식품 산업의 경우, 안전성 이슈가 결국 생산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는 도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곧 소비 촉진을 통한 어업 생산량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말로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 ▲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무, ▲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 수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성 조사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으로, 우리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 어업인의 노력이 보다 더 나은 가치로 인정받기를 기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경상남도의회 2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재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영민 | 발행인: 최수진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편집: 박유석, 임석정 | 청소년책임보도사: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 등록일 2013-07-12 |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 경 회 부: 대선 (112) | 문 화 부: 대선 (116)
 광고국: 1899.9659 | 사 회 부: 대선 (113) | 부 통 선 부: 대선 (117)
 | 경 계 부: 대선 (114) | 호 외 비 영 부: 대선 (118)
 | 스포츠부: 대선 (115) | 제 방 부: 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선 에이스텔 701호
 사외(駐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숲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시마를

길

한국의 아름다운 길! 조지훈과 주시마를

물

한국의 아름다운 물! 조지훈과 주시마를

빛

한국의 아름다운 빛! 조지훈과 주시마를

일

한국의 아름다운 일! 조지훈과 주시마를

맛

한국의 아름다운 맛! 조지훈과 주시마를

심

한국의 아름다운 심! 조지훈과 주시마를

영양

한국의 아름다운 영양! 조지훈과 주시마를

영양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 PARK SKY ASSOCIATION | citi2100 | 영양관광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산계곡, 참백공원, 축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천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한글보존공원, 반딧불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추후보전사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공룡박물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사생화전시관

여성리더 20명, 오세훈 시장에게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세상' 위한 정책제안

뷰티, 게임, 콘텐츠, 육아 등 다양한 분야 여성리더 20명 참여...영리더 라운드테이블 폐회

'더 나은 서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서울시는 저출산·육아, 스타트업,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정책 발굴을 위해 머리를 맞댄 '영리더 라운드테이블'이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수립된 총 30건의 정책제안을 3월 9일,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모자격증, 난자동결 지원(저출산·육아), 커피박을 활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기후변화), 라이프 기반 창업지원 확대(스타트업), 고소득 장기채류 외국인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 및 비자발급(도시경쟁력) 등이 제안됐다.

'영리더 라운드테이블'은 뷰티, 게임, 콘텐츠, 육아 등 창업기업 여성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20명이 2주마다 모여 발제자의 강의

를 듣고 토론을 통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제안이 이루어졌다.

영리더 라운드테이블은 위촉장 수여식(12.22)을 시작으로, 2023년 3월까지 총 7차례 토론이 진행됐다.

3월 9일 진행된 '영리더 라운드테이블' 해단식은 100일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저출산·육아, 도시경쟁력, 기후변화, 스타트업 등 4개의 분야에서 서울시에 대한 창업기업 여성 대표들의 정책 제안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저출산·육아' 분야에서는 전 생애 주기에서 자녀를 고려하도록 하는 예비부모교육,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검사·상담을 통한 출산 설계 및 난자 동결 지원이 제안됐다. 회사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가사 공동 바우처 제공 및 근무지 기반 직장 돌봄센터 등도 저출산·육아 문제

를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다.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여성 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성기업 업종의 비중이 큰 라이프 기반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제안됐다. 특히,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지원 대상 기업의 스타트업 업력 상한 확대, 여성대표를 위한 멘탈 케어 지원 등을 제안했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한국의 커피소비와 탄소배출간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대체품이자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커피박의 활용방안이 제안됐다. 커피박 수거에 동참하는 카페를 저탄소카페로 인증하고, 이용 시민에 통합예코 마일리지 부여하여 서울시 저탄소 굿즈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도시경쟁력' 분야에서는 매력적

인 글로벌 인재의 유치를 목적으로 고소득 외국인 장기체류자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 및 비자 발급, 서울 콘텐츠 펀드 조성이 제안됐다. 서울 관광코스의 NFT 발행, 도시 전체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화 등 서울의 우수한 관광자원에 콘텐츠적 매력을 입히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는 '영리더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개월간 압축적으로 논의된 정책 제안은 꼼꼼하게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번을 시작으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제안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리더들이 참여해 더 살기 좋은 서울을 위한 정책제안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발달장애인 체험·치유의 장...영등포구, '스마트 발달트레이닝센터' 개소

영등포구가 지난 9일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내 '스마트 발달트레이닝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발달트레이닝센터는 지역 사회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신체 활동과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시설로,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1층 프로그램실에 면적 95.1㎡, 높이 4.2m로 조성됐다.

구는 서울시가 주관한 '2022년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 운영 기관 공모사업'에 응모했다. 그 결과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이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돼 사업비로 2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공사를 진행했다.

스마트 발달트레이닝센터는 ▲미션을 수행하며 클라이밍을 하는 '클라이밍 콘텐츠' ▲점선잇기·사칙연산 퍼즐 키오스크 훈련 등 '모션인식 콘텐츠' ▲가상공간에서 걷거나 뛰는 운동, 복지관 오는 길을 연습하는 '스마트워킹 콘텐츠' ▲곤충채집·인형뽑기·플라잉버드 등 '스마트 롤러 콘텐츠' ▲디지털 피아노·장난감 맞추기·두더지 게임 등 '인터랙션 트레이닝 콘텐츠' ▲그림을 그려 스캔하면 대형화면에서 움직이는 '디지털 스케치 콘텐츠' 등 실제 생활환경을 가상 현실로 구현, 장애로 인한 물리적 제약을 보완해 개인별 맞춤 체험

활동이 가능하다.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 발달트레이닝센터 콘텐츠를 활용해 '감각통합 짝 그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각통합 짝 그룹'은 발달장애인이 디지털 콘텐츠를 조작·경험하면서 활동 동기를 부여받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은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 후 4월 중 프로그램을 개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발달트레이닝센터는 장애인 형제자매 및 가족을 위한 놀이·체험공간을 시범 운영해 장애인 가족의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발달장애인들이 일방적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기초체력 증진은 물론 치료 및 교육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스마트 발달트레이닝센터가 과학과 복지가 융합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더 나아가 스마트 발달트레이닝센터가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자 치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은평구, 안심식당 지정 신청하세요!

은평구가 식사 문화 개선과 외식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안심식당 지정 신청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식당이란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을 덜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거나 수저를 개별 포장하는 등 위생을 강화한 식당을 지정하는 제도다.

안심식당 지정 대상업소는 일반식사를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이며,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덜어 먹는 식기구 제공 △개별 포장된 수저 제공 또는 수저 사전 비치 등 위생적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점 소독·환기하기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구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농식품부에서 제시한 안심식당 지정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5만원 상당 위생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국 시군구에 지정된 안심식당을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보건소 홈페이지 게시판 및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민식/기자

금천구, 새벽일자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공개 모집

4월부터 천막쉼터 설치, 음료 제공, 환경 정비 등 업무 수행

금천구는 4월부터 '새벽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공개 모집한다.

만 19세 이상의 신체 건강하고 새벽 시간 근무가 가능한 금천구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3월 15일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응시원서 등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청 9층 일자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3월 24일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채용된 근로자는 평일 새벽 4시부터 오전 7시까지(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천막쉼터 설치 △음료 제공 △주변 환경정비 △쉼터 주변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수는 일급 44,630원으로, 금천구 생활임금과 새벽 근무에 따른 임금 가산이 반영된 금액이다.

금천구 새벽일자리센터는 새벽에



일자리를 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해 시흥대로 475 앞 인도(독산고개 새벽인력시장)에서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일용직 근로자에게 천막 쉼터와 차,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새벽일자

리센터가 일용직 근로자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라며, "책임을 가지고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줄 주민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서대문구, 공정한 아파트 관리 위해 지도점검 나선다

서대문구가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관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68개 단지 가운데 12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2023년도 정기 지도점검(감사)을 실시한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것으로, 공동주택의 ▲예산 회계 운영 ▲공사·용역 ▲안전관리 ▲입주자대표회의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구는 공인회계사, 건축사, 주택관리사 등 외부 전문가와 구청 관련 부서(주택과) 직원 등 총 9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단지마다 나흘씩 점검한다.

이에 앞서 입주민들로부터 아파트 관리에 관한 민원 사항과 우수 사례 등 사전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한다.

감사반의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해당 공동주택 게시판과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12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행정지도 91건, 시정명령 20건, 과태료부과 11건 등 12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아울러 구는 각 공동주택의 회계계정과 관리비 흐름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회계프로그램 원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같은 '지도점검 체계 이원화'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의 회계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공동주택 단지 12곳 이상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식/기자

GOOD AIR CITY 인증도시

대한민국의 숨, 울진

대한민국이 숨쉬고 모두가 함께 숨쉬는 땅, 울진

대한민국의 숨, 울진은 동해바다의 푸른공기와 금강송의 맑은공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맑은공기 모범도시(GOOD AIR CITY 인증도시)울진을 상징합니다.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 첫 삽... 문화가 생동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기대

시흥시는 10일 배곧신도시 문화집회시설-2 부지(서울대화로 255)에서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건립 기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다.

기공식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송미희 시흥시의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원 및 지역 의회원·시의원 등 관계자 및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 기공을 축하했다. 기공식은 사업의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성실·안전시공 선서 및 퍼포먼스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사비 총 693억 원이 투입되는 문화예술회관 및 아동회관은 연면적 17,558.6㎡ 규모(문화예술회관 14,298.61㎡, 아동회관 3,259.99㎡)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4년 하반기 준공 및 2025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건립된다.

시흥시 문화예술회관에는 공연장(대 710석, 소 301석)과 전시실, 커뮤니티센터(강의실, 연습실 및 편의시설(카페테리아) 등의 시설이 마련되고, 아동회관에는 어린이과학놀이



체험공간, 전문 과학관 2개관 및 옥외놀이터 등의 시설이 갖춰진다.

시는 문화예술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흥시 최초의 전문공연장인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지역 간 문화격차를 극복하고 문화복지 실현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을 꽃피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회관은 생애주기별 모든 아동의 삶이 존중되고 아동의 요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돼 아동복지 인프라 확충을 기대해볼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본 건립공사를 위한 시흥시 최초의 전문공연장인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지역 간 문화격차를 극복하고 문화복지 실현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을 꽃피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회관은 생애주기별 모든 아동의 삶이 존중되고 아동의 요구가 실현되는

신우용/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성실납세자에 감사의 뜻 전해

용인특례시, 납세자의 날 맞아 개인 30명 인증패·법인 20곳 인증현판 전달

10일 용인특례시 시청사 3층 컨벤션홀에선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자에게 인증패와 현판을 전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성실납세자 개인 30명에게 인증패를 전달하고, 법인 20곳에는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시는 매년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인 농협은행 이용 시 예금·대출금리 우대·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용인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개인 30명, 법인 20곳)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모두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시는 성실납세자 중 연간 3000만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1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 가운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금호리조트(주) 등 20곳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선정했다.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로 인정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권이 주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납세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며 "사실은 납세의 의무를 잘 이행해주시는 것에 비해 드리는 감사패가 초라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의 감사한 마음이 뽕뽕 담겨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세금을 시의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강조해온 것 중 하나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절약된 예산을 어려운 분들을 돕는 등 꼭 필

요한 곳에 사용하겠다. 시민들께서 내주시신 세금을 용인의 미래, 발전에 직결되는 곳에 투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의 미래와 관련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 성실납세자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지 연구를 더 해보라고 했다. 성실납세자 분들이 다른 시민들께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 홍보도 하고, 시가 혜택을 더 마련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조혜영/기자

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

화성시가 9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시청 2층 중앙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우정숙 자치행정과장과 명미정시의원, 김창경 농협은행화성시지부장 등 민간위원 7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 8일까지 2년간이며,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답례품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창경 위원이 선출됐으며, 화성시 대표 답례품으로 ▲쌀 ▲포도 ▲꿀 등 농축산물 8개 품목, ▲김 ▲홍삼 ▲전통주 등 가공식품 8개 품목, ▲도자기 세트 ▲방짜유기 등 공예품 3개 품목, ▲문화·관광상품 등을 선정했다.

시는 이들 답례품을 대상으로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 뒤 오는 4월 경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답례품과 의미 있는 기념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

사랑기부제'는 현재 거주 지역 외에 타 지자체나 고향에 연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이 제공된다.

양시현/기자

안양시, 신뢰받는 청렴도시 위한 '시민감사관 간담회' 개최

최대호 시장 "민관 협력 감사 체계 강화...감사 사각지대 해소·청렴도시 만들 것"

안양시가 10일 오후 2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정광조 안양시 감사관, 민간전문감사관 및 청렴시민감사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안양시 자체감사 계획을 공유하고 감사 과정의 개선사항 및 시민 협업 생활밀착형 감사사례 발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감사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신뢰받는 감사 체계 구축, 자체감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민간전문감사관 및 청렴시민감사관을 시민감사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법무, 노무, 건축, 토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감사관은 건설공사 현장감사 등 시 자체감사에 참여하며 자문과 문제해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청렴시민감사관은 시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을 제보하고 부패유발 제도·관행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시는 올해 시민감사관과 적극 협력하며 행정기관·보조단체·출연기관 등 종합감사 6건, 특정감사 6건 및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민관 협력 감사 체계를 강화해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감사관의 따듯한 질책을 적극 반영해 신뢰받는 청렴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 시민감사관은 지난해 종합감사 12회, 심의.평가 18회, 법률 자문 3회 등의 감사 활동을 펼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신우용/기자

수원시, 지역상권추진기획단 첫 회의 개최

민관 협업체 운영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수원시가 9일 수원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해 민·관 협업체인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인계동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시의 지역상권 육성·활성화 계획을 공유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주민 홍보 방안을 논의했다.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상생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지역상권추진기획단은 행정,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민간 등 4개 분야 11명으로 구성됐다. ▲경제정책국장(단장), 지역경제과장이 행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수원도시재단이 중간지원조직 ▲대학교수, 경제전문가, 수원시정연구원이 전문가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회, 골목상권 상인회 등이 민간을 맡았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6월까지 대상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마무리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상권법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에 큰 전환이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수원시에



서 선도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단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활발하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상권법은 상인, 임대인 등 상권 주체 간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제정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권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안성시는 봄철을 맞이하여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자전거 이용자가 늘고 있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전거 안전 보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대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안전에 취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과 체험'을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일정을 조율해 진행되며, ▲자전거 안전 점검과 관리 방법, ▲자전거 안전 수칙, ▲안전을 위한 장비 착용, ▲안전 표지판, ▲교통신호 등 기본적인 안전 관련 이론과 도로 주행 연습을 병행해 진행된다.

또한, 시는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시민이 수

혜자가 되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

내년 4월 3일까지 적용되는 보험은 외국인 포함,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이용 부상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되며,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시 운영할 최대 1천만 원 ▲후유장애 최대 1천만 원 ▲진단위로금 20만(전치 4주)~60만 원(전치 8주)이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자전거 체험식 교육과 자전거 안전보험 가입으로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보험에 가입하세요!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보험에 가입하세요!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보험에 가입하세요!

한국도자재단-고양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 발전·활성화 위해 '맞손'

재단, 10일 고양문화재단과 '지역 연계 문화예술 발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도자재단과 고양문화재단이 10일 고양문화재단 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에서 '지역 연계 문화예술 발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북서부권 지역의 문화재단과 공동협력을 통해 도자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의 발전을 위한 상호 업무교류 ▲행사 및 사업의 공동 홍보 및 상호 협조 관계 구축 ▲지역 문화예술 및 도자문화 발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인프라 상호 교환 ▲기타 각 기

관의 발전 및 문화예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서홍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김백기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이경혜 경기도의원, 고부미 고양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홍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경기도 북서부권 지역과 연계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본격 발굴·추진할 계획이다"라며 "나아가 온 도민이 누릴 수 있는 도자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1분기 소비·투자 목표액 3조 9,128억 원... 신속집행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3월 10일 경기도 1분기 재정집행 시·군 점검회의 개최

경기도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1분기 소비·투자 분야 신속 집행 목표액을 3조 9,128억 원으로 설정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하는 등 신속한 예산집행에 나선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10일 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들과 영상으로 1분기 재정 신속 집행 시·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분기 집행 가능일이 2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부지사는 "세계적인 경기 위축과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가 특히 어려운 시기로, 공공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예산집행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전국 지방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각 시·군별로 주요 집행 부진 사업을 점검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소비·투자 분야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 1분기 소비·투자 분야 신

속 집행 목표액은 총 3조 9,128억 원으로 경기도가 5,909억 원, 시·군 3조 3,219억 원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총목표액 23조 8천억 원 중 경기도는 1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회의를 통해 추가 집행 가능 사업을 새로 발굴하고, 겨울철 공사 중지로 집행이 부진했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기성금과 선금을 확대 집행할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등 시·군이 겪고 있는 예산집행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런 공공부문의 확장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도와 시·군 재정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건비, 물건비, 시설비 등 소비·투자 분야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소비·투자 분야 예산 16조 4,550억 원을 집행해 목표를 1조 827억 원 초과 달성했다. '2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신속 집행 평

가 결과 수원·화성·고양·시흥·가평 5개 시·군이 최우수, 파주·광명·성남·의정부·안양·용인·오산·하남·여주·연천·동두천·양주 12개 시·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총 10억 6,68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2023 상반기 온라인 워크숍 개최로 경기교육 정책 소통과 공유의 자리 마련

450여 명이 함께 참여해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 발표와 토의

경기도교육청이 10일 2023 상반기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과 본청 실·국장, 25개 교육지원청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소속 직원 450여 명이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해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발표와 질의응답, 토의에 함께 했다.

주요 안건은 ▲개인정보 유출 예방 등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 방안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 추진 ▲2023 IB 프로그램 운영 ▲지역교육협력 기반 구축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경기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다.

개인정보보호 유출 예방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위해서는 ▲관리체계 및 실태점검 ▲정보자원 통합 구축 ▲보안감사 강화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AI 활용 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AI 활용 맞춤형 교육 활성화

▲스마트단말기 보급 및 관리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학교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IB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IB 관심학교 운영교 선정 ▲지원 예산 규모 ▲IB 프로그램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연수 계획을 안내하고 의견을 나눴다.

지역교육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공유학교 플랫폼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하고 추진해야 할 내용을 안내했다.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략으로는 ▲다중학습안전망을 통한 촘촘한 학습지원 ▲에듀테크 기반 개별 맞춤형 학습 강화 ▲유관 부서와 연계한 초등 3, 4학년 집중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인성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기본 인성 함양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인성·시민교육 강화 ▲인성교육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디지털 사회 속에서 기본생활 습관의 부재, 가정과 지역사회 인성교육



약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의했다.

임 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해 미 등교일수가 많았던 현재 초 3, 4학년 학생들의 학력 실태와 인성 함양 등의 공백에 대해 실태 분석과 진단, 특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학부모님의 관심과 역할 등 교육적 책무성이 중요하며, 학교와 지역사회도 함께 협력해 기초교육과 인성교육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축소됐던 체육과 예능 교육은 학생의 기초와 기본

에 관련되는 활동으로 자기 계발의 기초가 되도록 강화해야 한다"며 "학생의 심리진단, 체력진단, 기초학력 진단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오늘 중요한 정책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어 경기교육은 희망적"이라면서 "경기교육의 원 팀이 오늘 더욱 단단해지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혜영/기자

염태영 경제부지사, 팔달산상인회 만나 옛 경기도청 인근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경기도청사의 광고 이전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옛 경기도청(팔달구 고등동 소재) 인근 상인들을 만나 구 도청사 인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염 부지사는 지난 9일 옛 도청사 상형실에서 '경기도-팔달산상인회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청사의 광고 이전으로 매출 감소와 지역 공동화로 인해 구청사 인근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 수원시, 상인회가 함께 소통하며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팔달산상인회는 염 부지사에 유동인구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지역 공동화에 따른 상권 침체 등의 고충사항을 전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옛 도청사 공간을 활용 실내의 행사 개최, 주차장 및 마을버스 등의 교통 개선, 인근 거리 환경정비 등을 제안했다.

조혜영/기자

이에 염 부지사는 제안된 사항 중 실질성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정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 수원시에 협력을 요청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팔달산상인회에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까지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 도청사를 주인인 도민에게 개방하고 다양한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실험·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 전까지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도 소속기관 등의 사무공간 임시 활용,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구청사 잔디광장·회의실 시설 도민 개방, 각종 행사 개최, 영화·방송 촬영 장소 제공 등으로 혁신복합단지 완공 전까지 지속적인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방안이다.

조혜영/기자

[용인특례시] 양지면 "H 칼라팩공장"에서 원인모를 화재 발생

지난 11일 토요일 오후 14:5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소재 H 칼라팩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근무중이던 근로자에 의해 화재 발생 신고를 하였다.

용인소방서는 양지119 안전센터에 출동 명령을 내려 현장에 즉시 진입하여 살수차를 동원하여 화재를 3시간 가까이 진화했다.

전소된 H 칼라팩 공장 관계자에 의하면 근로자 5명이 근무중 공장 내부가 아닌 전소된 창고 옆 폐건물 부근에서 연기가 난다는 말을 듣고 근로자들을 대피시키고 112에 화재신고를

를 처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 관계자는 200여명의 창고건물과 1 ton 봉고트럭 1대 그리고 컨테이너 2개가 전소되어 약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지만 인명 피해가 없고 화재가 빠르게 진압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불은 공장 내부가 아닌 공장외 인접된 폐 공장 건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근로자들의 전언이 있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 및 발화지점 및 화재 원인은 사고조사 중이다.

조혜영/기자



경남교육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지침서 등 제작

구체적 절차, 관련 법령 등 자세히 안내...학교급식 안전성 강화 기대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식 환경개선 지침서』와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안내』 책자를 제작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부했다.

이번 지침서에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과 급식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관련 법령 사항 등을 자세히 담아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급식 환경개선 지침서』를 제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영양교사, 행정실장, 도교육청·교육지원청 급식담당자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업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 표준안 ▲급식시설의 환경개선 절차 ▲실무자료 등을 알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수록했다.

또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안내』 책자에는 학교급식 위생안전협의회에서 검토한 ▲점검 요령 ▲점검 항목 ▲현장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들어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예천군, 국토부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공모사업 2개 분야 선정!

- 국비 1억9천만 원 확보, 공공사업 전문성 강화·체계적인 공간전략 수립
- 김학동 예천군수, "공공사업 전문성 강화와 도시 디자인 수준향상으로 주민 편의 증대 기대"

예천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민간전문가제도 운영지원 공모사업'에서 민간전문가 운영과 공간환경전략계획수립 2개 분야에 모두 선정돼 국비 1억9천만 원을 확보했다.

공간환경전략계획은 도청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고있는 예천읍 원도심을 중점추진권역으로 설정해 현재 추진 중인 개별 사업들과 연계하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건축·도시·조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중장기 통합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게 된다.

민간전문가 운영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의 전문성 강화와 디자인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총괄 자문, 조정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 총괄·공공건축가를 선임해 운영한다.

이에 군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장인 최내영 교수를 총괄 건



축가로 선임하고 공공건축가와 함께 민간전문가를 구성해 공간환경개선, 공공 건축사업 관련 건축기획, 기술 자문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총괄·공공건축가로 구성된 민간전문가 운영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을 통해 예천군의 공공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통영시-거제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 협약 체결

통영시, 거제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맞손'

통영시와 거제시는 지난 10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홍보 업무협약을 통영시청에서 체결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상생홍보 업무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홍보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간 상호 기부를 통해 상생발전 도모와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비용 홍보매체 공동 홍보 ▲지역주민 간 상호 교차 기부 홍보 ▲각종 SNS 홍보매체를 통한 상호 홍보 ▲축제 및 행사 시 상호 도시 방문 교차 홍보 등을 포함한다.

특히, 천영기 통영시장과 박종우 거제시장이 통영-거제 상호 도시의 발전을 응원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상생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기부금을 상호 도시에 기탁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올해 첫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영시와 거제시는 앞으로 적극적인 기부제 홍보와 함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



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개월 간 통영시에 전달된 고향사랑 기부는 266건, 5,000만원이며, 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호도 조사결과 건별치 세트(22%), 육지 고무마(20%), 훈제굴통조림세트(15%), 바다장어 선물세트(10%) 순으로 나타났다.

통영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 계정에 게재하고, 농협 통영시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자매 도시를 통한 홍보, 홍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정착에 힘쓰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정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이를 모아 주민복지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농·축협 은행에서 가능하다.

이윤준/기자

2023년 안동 태사묘 춘계향사 봉행

삼태사 후손 100여 명 참석, 권기창 안동시장 '초헌관' 맡아



태사묘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안동 태사묘에서 삼태사 후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향사를 봉행했다.

안동 태사묘는 고려 건국에 공을 세운 김선명, 권행, 장정필 삼태사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안동태사묘 향사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에 삼태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 집안의 후손이

함께 행한다.

이번 춘계향사는 봉행, 식복례, 3문중 대당회 순으로 진행됐다. 초헌관으로 권기창 안동시장, 아헌관으로 권정창 태사묘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종헌관으로 장상섭 태사묘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제관을 맡았다.

안동 태사묘는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태사묘 내 박물관

에는 보물 451호인 안동태사묘 삼공신 유물 22점을 보유하고 있다.

권기창 시장은 "우리 지역은 삼태사를 비롯해 훌륭한 선현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라며 "선현들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는 한편, 시민화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윤근수/기자

2023년 1월 1일 내 고향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
최대 합산 500만원까지
(다른 지자체 합산)

기부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초과시 16.5%)
·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제공

답례품
· 예천장터(www.ycjang.kr) 쿠폰
· 예천사랑상품권
· 삼강주막 캠핑장 할인권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기부금
대면접수창구

https://ilovegohyang.go.kr

부산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및 중심고 운영

-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학교 57교, AI 융합교육 중심고 4교 지정
- AI 교육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AI 교육기반 마련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월부터 다대초, 부산수영중, 금곡고 등 61교를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학교와 AI 융합교육 중심고로 지정·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정보 교과 수업 확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AI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선제적 적용을 위한 조치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정보교육실 구축 3교, 교육활동 모델고 54교 등 총 57교를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학교'로 선정했다. 또 'AI 융합교육 중심고'는 이미 운영 중인 동래고, 동아고, 삼정고 등 3교와 신규 지정고 금곡고 등 총 4교를 지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다양한 AI 교육 수업 모델 개발과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AI 교육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학교' 중 다



대초, 광명고, 대명여고 등 정보교육실 구축 3교에는 8천 250만 원을, 교육활동 모델고 54교에는 학교별 1천 250만 원을 지원한다. 'AI 융합교육 중심고' 중 금곡고에는 1억 원을, 운영 중인 3교에는 5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이 학교들은 ▲정보교육 공간 혁신 ▲정보 교과 시수 확대, 교과 연계 AI 활용 수업 등 SW·AI 교육과정 내실화 ▲동아리 활동, 캠프, 방과후 학교 등 SW·AI 교육 특색활동 운영 ▲SW·AI 교육 문화조성 등 과제를 수행한다.

한종환 시교육청 디지털미래교육과장은 "인공지능 교육 정책학교 운영은 SW·AI 교육기반 마련을 확대 지원과 학교의 여건에 맞는 SW·AI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송진진/기자

경북교육청, 농어촌 소규모 학교 고른 성장 및 활성화 지원

2023학년도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 추진

경북교육청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정상화 및 교육력 강화를 위해 '2023학년도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작은 학교 가꾸기' 사업은 소규모 학교의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08년 경북교육청의 특색 사업으로 시작했으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돌아오고 찾아가는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농산어촌 읍·면지역 소재 학생 수 60명 이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업 학교를 선정하며, 교당 연간 1,500만 원 내외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까지 147개교에 68억여 원을 지원했으며, 그동안 지역 사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특

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고른 성장 및 활성화에 기여했다.

올해는 2021년에 선정된 13교와 2022년에 선정된 37교, 총 50교에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특색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기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간 협력교육활동 및 공동교육과정 등을 운영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리적·문화적 여건이 불리한 농산어촌 지역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돌아오고 찾아가는 지속 가능한 작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사교육 경감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박차!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 조사 발표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 사교육 경감을 위한 31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실천해 온 결과,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 7일(화)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1.8% 증가했으며,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78.3%로 전년 대비 2.8% 포인트 증가했다.

경북교육청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4천 원,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각각 전국 3번째, 전국 5번째로 낮은 순으로, 지난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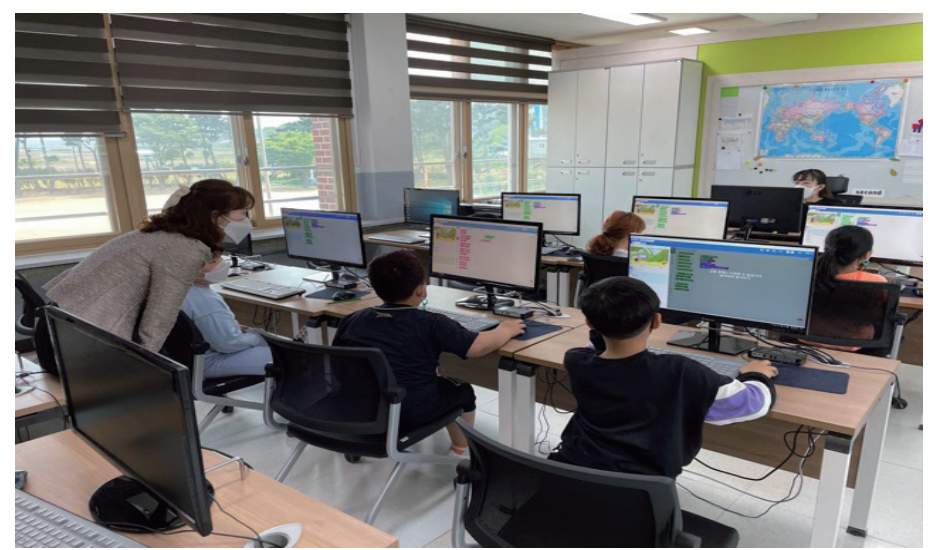
년 대비 각각 3단계와 1단계가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녀들의 학습결손에 대한 우려와 소비자가 상승 등 복합적 원인으로 전국적으로는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도 경북교육청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사교육 경감 노력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되었던 방과후학교 운영을 모든 학교로 확대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강화를 늘리고 농산어촌 순회 방과후학교 운영 지역의 확대, 미래교육지구 사업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방과후학교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과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 플랫폼 '온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교과와 보충학습을 지원했으며 '우리반 희망사다리', '스스로 학습성취인증제' 등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했다.

특히 사교육의 수요가 기존 교과 중심에서 특기적성을 고려한 예·체능 분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1인 1예

수(악기), 1인 1스포츠, 진로 연계 학생 동아리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임종식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안전교육



영덕군은 지난 9일 영덕문화체육센터 여정회관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발대식을 진행하고 해당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은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의 기회와 사회참여를 견인하게 된다.

2023년 상반기 참여 인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8명, 공공근로 5명 등 총 13명이며, 선발된 인원은 이달에서 6월까지 약 4개월간 읍·면 곳곳에 배치돼 꽃길 조성사업, 하천변 산책로 가꾸기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윤사원 일자리경제과장은 "참여자 중 고령자가 많은 만큼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경험을 축적해 일자리사업이 군민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사업 포기자가 발생한 일부 사업장의 참여자를 추가모집 중이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의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정문화/기자

유치원 및 초등 오후돌봄수업 간식 업무 지원 사업 운영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PLUS 학교 지원으로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 관내 유치원과 초등 돌봄, 방과후학교 간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PLUS 학교지원센터에서는 관내 업체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 간식 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던 유·초등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시장 조사를 통해 유·초등 돌봄 간식 지원이 가능한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영양가 있고 다양한 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체들과 논의하고 관리함으로써 양질의 간식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초등오후돌봄간식 업무 지원을 받고 있는 관내 유치원 P모 교사는 "영양교육지원청 PLUS 학교지원센터의 돌봄간식업무지원으로 업무가 많이 경감됐고 양질의 간식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였다.



김유희 교육장은 "학교지원센터의 다양하고 적극적 업무 지원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 교사들이 학생들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의 성장과 건강을 고려한 양질의 간식업 업무 지원으로 유·초등돌봄수업 운영에 학부모와 학생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김창기 경북도의원, 지방소멸 대응 대책 마련 촉구 도정질문

- 경북특별자치도 설립, 생활인구 활성화, 2기 혁신도시로 지방소멸 대응 주문
- 지역갈등 유발하는 상주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해 도지사가 나설 것 촉구
- 문경에 도립박물관 건립 및 점촌중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경북 전역으로 확장 건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도의원은 제338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방소멸 문제 대응방안 마련,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문경에 도립박물관 건립촉구,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및 문제점을 제기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

지방소멸은 저출산·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지방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 지자체 등 각계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정책과 연구가 시행되고 있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지는 등 지방소멸의 시계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창기 의원은 "지방자치법" 등 헌법 법령에 따른 경상북도의 자치권한으로는 지방소멸 대응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규제완화와 특례규정 발굴, 권한이양 등 자치권을 강화하고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유출감면 권한을 강화하여 수도권의 우수한 기업과 인력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경북의 생활인구 목표와 유치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2기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이철

우 도지사의 복안과 계획에 대해 물었다.

또, 최근 문경·상주 간 첨예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상주시는 함창읍 나한리 일원에 기피시설인 공영묘지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모공원의 입지가 행정구역상 상주시이지만 상주시청에서 20km나 떨어져 있고 사실상 생활권은 문경이다. 이로 인해 문경에서는 상주시청 앞 시민집회와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향후 집단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경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환경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 "지방자치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나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장사시설협의회 등 법정기구를 통한 갈등 조정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경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경북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한 시점이 1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뿐만 아니라 문경시 농업면과 상주시은척면 경계에 추모공원을 설치해 오 한데서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이어, 지난 2017년 도청신도시 입지를 추진했으나 2018년 11월 문체부 국립박물관 사전평가 결과 '건립 부적절' 의견이 있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국립박물관 건립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국립 박물관 건립은 문경이 최적의 입지임을 강조하며,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 문경에 국립박물관과 같은 문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문화와 관광이라는 쌍두마차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소재산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자기, 찻사발 관련 문화재와 콘텐츠를 국립박물관과 연계시킨다면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의 외국인에게 각광 받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물관과 같은 문화인프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접근성임을 상기시키며, "문경은 경북도 내에서 지리적으로 서울·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뿐 아니라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향후 중부내륙철도까지 건설되면 뛰어난 접근성과 다양한 교통수단이 확보되어 타지역 관광객을 쉽게 끌어들이 수 있다."고 말하고,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국립박물관

의 문경입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2022년 문경 점촌중학교에서 실시한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직접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해 세부 일정, 예산 등을 계획하고 팀원 간 화합을 통해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내 모든 학교에 예산 지원과 사업이 확대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능력과 협동심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을 건의했다.

윤근수/기자



일손 걱정 없는 농촌 위해 발로 뛰는 봉화군

- 지난해보다 5배 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 베트남 하남성·프선시, 캄보디아와 협약 체결, 농촌일자리중개센터 확대

봉화군이 농촌의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중된 농촌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구감소에도 인건비까지 높아지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농촌지역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먼저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비해 다양한 인력공급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와 MOU를 체결했다.

지난 2월에는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하남성과 그동안 유지해 온 계절근로자 협약을 갱신하고 적기에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베트남 내 근로자의 선발 과정과 행정절차를 점검했다.

지난해와 같이 국제적인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캄보디아와도 MOU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3월 3일 캄보디아 대사관과 노동직업훈련부 관계자가 봉화군을 방문해 세부 협의를 마치고 6일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했다.

베트남 프선시와도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중 세부 협정이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프선시 근로자도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봉화군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768명을 배정받았다. 이중 해외 MOU지자체 근로자 588명, 결혼이민자 가족 130명,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50명을 도입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46명보다 5배가 늘어난 규모이다.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3~5개월 동안 직접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돼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외국인 인력을 직접 고용해 단기 인력(1~2일 단위)이 필요한 중소형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정착된다면 원하는 날마다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저소득·소규모농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봉화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촌일자리중개센터 건립,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도시 유희노동력을 중개해 농촌 현장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관내 2개 농협(봉화농협, 춘양

농협)에서 연인원 5,300여 명을 농가에 지원했다.

올해는 국도비를 포함한 운영비 4억6100만 원을 확보해 더욱 많은 인원을 농가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024년까지 농촌일자리중개센터를 건립하고 100여 명의 내·외국인 근로자가 생활할 수 있는 숙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개센터가 건립되면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숙련된 근로자가 농작업에 투입되어 농가 인건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봉화군은 농가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더욱 현실적인 인력중개센터 운영과 무단이탈이 걱정되는 계절근로제도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도입을 확대하는 등 농촌 인력 안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봉화군 농촌인력 해소에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촌일자리중개센터 건립,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촌에 일손이 부족할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달성군-코레일 대구경북본부 지역관광 활성화 위한“첫걸음”

달성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철도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업무협약

대구 달성군과 코레일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9일, 열차를 이용하는 타 지역 관광객 유치 확대 활성화를 위한 철도 연계 관광 상품 판매 및 유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달성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와 이두형 본부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 15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철도연계 상품 운영 및 열차 할인 지원 ▲상품 운영 관련 재정 및 행정 지원 ▲관광객 및 열차 이용객 유치를 위한 제반 노력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홍보 지원 등, 양 기관의 상

호 발전을 위한 관광객 유치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개별 여행객이 코레일의 열차 상품을 구매해 비수출, 동등서비스를 비롯한 달성군의 주요관광지를 방문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교통편의, 숙박비, 유료체험비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코레일과 함께 철도연계형 달성군 여행 상품을 개발해 상생발전을 모색하겠다.”며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경산교육지원청, 새학기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 현장점검

경산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새학기 맞춰 학교 방역 특별 점검 및 지원을 3월 6일(월)부터 3월 16일(목)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학교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학교 방역관리 계획, 방역지원 관리 실태,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및 교육·홍보, 취약 시설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업무 담당자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양군 교육장은 “새학기 시작으로



여러 가지 신경써야 할 것이 많겠지만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학교 방역 현장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이나 현장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선 조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교육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영양군 지방소멸대응 추진단’과 용역수행기관이 참석, 정책 발굴
- 오도창 군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인구 위기 극복에 총집중

영양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주재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영양군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면서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투자계획 평가 후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차등 배분됨에 따라 철저한 투자계획 수립을 통해 많은 금액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고자 시행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구성된 ‘영양군 지방소멸대응 추진단’과 용역수행기관이 참석했으며,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소멸대응 정책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으로 개최됐다.

오도창 군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군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으며,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군민 정책 제안 공모 등을 통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

린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10만여 명 시민과 함께... “도시브랜드 선정 완료!”

부산 도시브랜드 디자인 선호도 조사 마무리

부산시가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공개했다! 시는 지난 10일 오후, 부산시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자인 최종 후보 3개(안) 가운데 도시상징(CI)과 브랜드 슬로건(BI)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인공지능 이미지를 접목한 3차원(3D) 입체 로고이다. 도시상징(CI) 마크는 부산의 영문 이니셜인 ‘B’와 ‘S’를 모티브로, 국내 최초 색깔, 각도 등을 통해 3차원(3D) 입체화를 적용한 디자인이다. 브랜드 슬로건(BI)의 경우, ‘부산이라 좋다’를 국문을 함께 표기하여 “Busan is good”의 본연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자 했다.

송시가 지난달 28일부터 3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참여한 3만 7천33명 가운데 41.7%(1만 5천458명)가 1안 디자인이 최다 득표를 받았고 ▲오프라인 조사에서도 2만 3천552명 중 39.4%(9천286명)로 가장 많은 표를 받는 등, 총 2만 4천 744명의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날 오후 개최한 부산시 도시브랜드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시민의 의견

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3차원(3D) 입체 로고를 부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디자인으로 결정하였다. 특히, 시가 부산의 미래를 견인할 미래세대의 선호도 파악을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찾아가는 투표소’를 운영한 결과, 1020 세대도 1만 디자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도시브랜드 디자인 선정이 완료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여간 걸쳐 부산시가 진행해온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향한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 슬로건 선정에 4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데 이어, 이번 디자인 선호도 조사에도 6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10만 명의 시민참여가 바탕이 된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탄생한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슬로건 선정부터 디자인까지, 부산의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향한 여정에 10만 명에 달하는 시민분들께서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변화된 도시의 위상과 높아진 세계의 관심 속에서 시의 적절한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탄생한 새 브랜드가 시민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도 가치 있게 인정

받도록 활용하고,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Busan is good의 의미에 걸맞게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시민이 행복한 부산으로 진정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브랜드 리뉴얼을 계기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는 21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되는 ‘도시브랜드 선포식’에서 국내 최초로 3차원(3D) 입체화로 표현한 도시상징(CI)을 선보이고, 브랜드 슬로건(BI) 조형물도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송종진/기자

울진산불 관련 담화문



역 및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1년 전 발생한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같은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군에서는 산불특별대책을 세우고 산불감시원을 121명에서 78명 증원된 199명으로 확대하여 행정구역별 마을별 감시가 되도록 하고, 비상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력도 보강했습니다.

또한, 초대형 산불진화헬기 울진군 배치,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및 경상북도 소방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유치하여 산불로부터 안전한 울진군이 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립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운영되면 24명의 특수진화대와 고성능진화차가 배치되어 비상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경상북도 소방 119 산불특수 대응단 운영 시에는 1만리터 담수 가능한 초대형 소방헬기와 진화대 50명이 울진군에 배치되어, 산불 피해의 규모를 결정하는 초기 진화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산불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입니다. 대형산불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산불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산부산물이나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화목보일러 같은 화기류 취급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그동안 울진군은 수많은 재난과 어려움을 군민 화합의 힘으로 잘 이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산불 피해복구 과정에서 난무하는 근거 없는 소문과 정보에 흔들림 없이,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십시오.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복구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울진군이 대형산불 피해지가 아닌 재난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활동에도 적극 동참해주시십시오.

2022년 3월, 그날 상처가, 재난에 더욱 안전하고 재해에 더욱 강한 울진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울진군의 아픔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2. 3. 10. 울진군수 손 병 복

경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농장 차단방역에 총력!

- 영덕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 봄철 야생멧돼지 이동증가로 바이러스 전파위험 높아져

경북도는 최근 영덕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농장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최근 상주, 문경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되고 영덕 지역으로 감염이 확대되는 한편, 봄철 야생 멧돼지 출산기로 개체수가 증가하고 이동이 늘어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매우 높다.

우선 도는 이번 야생 멧돼지 검출지 10km내 방역대 양돈농가 3호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및 정밀감사를 실시하고, 영덕 전체 양돈농가 11호에 대한 긴급 방역점검을 실시했다.

또 발생지 인근 농장 및 진입로를 매일 소독하고,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높은 영덕 및 인근 지역 양돈농장에 야생동물 기피제를 긴급 배부할 예정이다.

방역이 취약한 도내 양돈 밀집사육단지 4개소(안동,경산,고령,성주)에

대해서는 단지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해 방역조치가 적절하게 추진되는지 현장점검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도내 전체 양돈농장에 대해 7대 방역시설의 설치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미설치 시에는 행정조치 등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경북도에서는 야생 멧돼지 개체수 저감을 위해 1만4000두를 포획 목표로 도내 622개 시군에 야생 멧돼지 포획단 272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전 양돈농장에 ASF 위험주의보가 발령 중이며 ▲마을방출 방역수칙 홍보 ▲농장임구 현수막 게시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 4단계 소독 ▲영농장비 농장 내 반입 금지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양돈 종사자는 발생지 방문 금지, 농장 주변 영농활동 및 입산 금지, 장화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매일 가축예찰을 실시해 이상



이 있을 경우 즉시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등 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영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타도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이어지고, 야생 멧돼

지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시기에 접어들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양돈농가 및 축산 관계자 모두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선비글판 문안 수상작 선정

최우수작 박추희씨 '선비를 품다, 문화를 담다, 영주를 열다'

경북 영주시가 올바른 인성 함양과 선비정신의 실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선비글판' 문안 수상작을 선정했다.

지난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까지 전 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비글판' 공모에서 접수된 총 198편의 창작문안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개최한 선비글판 문안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을 선정했다. 선정 문안은 지난 8일까지 전국에 중복 여부 조사를 거쳐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선비글판 문안선정심사위원회는 응모 문안을 심사한 결과 ▲최우수작으로 박춘화

(대구광역시)씨의 '선비를 품다, 문화를 담다, 영주를 열다'를 ▲우수작으로 장지희(영주시)씨의 '미래를 품은 선비정신, 시민과 함께 한 걸음 더!'와 이은순(대구광역시)씨의 '선비의 품격은 높이고 영주의 정신은 꽃피우고'를 각각 선정했다.

부상으로는 최우수상에 50만원, 우수상에 30만원의 은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시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청사 외벽 및 시립도서관에 최우수작을 대형 현수막으로 게시되고 선정된 3개 작품을 영주시 관내에 설치된 264개의 IoT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최우수작을 수상한 박춘화씨는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기쁘고, 선비정신이 대대로 이어져 미래의 새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만기 행정안전국장은 "이번 선비글판 문안 선정 공모에 참여해주신 국민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선비글판 문안이 영주의 선비정신을 전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건설·새마을 분야에 3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군은 ▲ 건설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댐·발전소 주변지역 균형발전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도로 인프라 구축 ▲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 주민생활 편의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행복 청송 건설이라는 세부 전략을 마련했으며, 이는 '하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실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첫째 군은 우선 댐·발전소 주변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7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8천만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으로 댐과 발전소 건설의 간접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행정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건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둘째 관내 도로를 정비하여 군민의 안전 및 도로이용 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선형개량, 아스콘 덧씌우기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을 제공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해 나간다.

또한 예산 2억4천5백만원으로 청송교·월막교(청송읍), 덕천교·송강2교·중평교(파천면) 등의 2층 시설물(연장100m이상 교량)에 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그 외 교량시설도 정기안전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농업용수가 부족해 상승적으

청송군,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

올해 지역 정주여건 개선위해 건설·새마을 분야 385억원 투입



로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이천·거두지구에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 145억원(이천지구 71억원, 거두지구 74억원)을 들여 저수지, 용수로 등의 수리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업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농경지 67.3ha의 가뭄피해를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8억원의 예산으로 진보면 세장리 황곡지구(35ha), 안덕면 지소리 구덕지구(18ha), 현서면 모계리

구(26ha)에 취수시설과 송수관로 등의 발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24억원을 들여 노후된 저수지와 농업기반시설물 46기구를 개·보수할 계획이다. 이런 추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영농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6억원, 소화천 정비사업(실물천)에 47억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4억원, 하천 및 소화천 정비사업 10억원을 투입, 자연재해 우려지구를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태풍 마이삭·하이선의 피해를 복구하고 향후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도비 96억원을 투입해 구평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며, 이밖에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하천생태계를 보전하고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6.8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하천 우수지장목 및 퇴적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을안길포장, 농로포장, 세천정비, 소교량 가설 등 군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7건에 43억원을 투입 하며,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과감히 해결하고 차질 없이 완료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송읍 금곡1리 마을회관을 신축,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청송을 만들어 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2022년 진보면 소재지 중심지에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7개 점포에 대해 간판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진보면 구간에 대해 순차적인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밝고 쾌적한 도시거리 공간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원을 확보해 청송읍, 진보면을 제외한 6개면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는 등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갈 전략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북 이차전지 기업들, 인터배터리2023 참가

SK넥실리스, 성일하이텍, 데카머티리얼 등 6개 기업 참가

전북도는 내내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배터리 2023'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주관하는 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회로 2013년에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는 대기업 및 다수의 바이어가 참여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모바일 소형시장부터 중대형 전지, ESS(에너지저장장치)까지 다양한 신제품 및 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배터리 신기술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잡페어(Job fai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라북도에서는 SK넥실리스, 성일하이텍, 데카머티리얼, 에너베터리리솔루션, 이앤플러스, 이큐브머티리얼 등 총 6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참가 기업들은 그 동안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한 '이차전지 소재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연구개발 및 시제품 개발 등을 함께



연구개발 및 시제품 개발 등을 함께 하는 기업들이다.

참가 기업 중 성일하이텍은 2차전지 재활용 원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상용화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배터리 셀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양극재 및 음극재를 고순도로 회수해 자원순환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전북의 우수 기업이다.

특히 성일하이텍은 전시회와 함께 개최되는 데카머티리얼에서 'LIB 리사이클링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배터리 순환 경제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데카머티리얼은 차세대 성장 동력인 음극소재, 탄소섬유 전문 기업으로, 작년 K-Mtech2022(한국 소재·복합재료 및 장비전)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음극소재 기술을 소개해 호평을 받았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고성능 나노실리콘/탄소 복합 음극소재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백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그 동안 이차전지 소재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전시회가 그 성과

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지난 2월 신청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협력하고 있고, 이번 전시회에서도 기업들과 함께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전북의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오는 3월 14일 비전전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순창군, 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 신청



순창군은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 오는 4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받는다.

10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직불제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로 구분되며,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일반농가와 비교해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와 연계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 만로 농가가 관행농업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며 인증 유형 중 유기농업으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직불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이행한 농지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가당 인증유형 및 재배품목에 따라 ha당 50~1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친환경농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농업 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드는 것으로 친환경 농업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친환경 실천 농가에 지원되는 혜택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순창군 공약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품목확대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063-650-5621) 및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식/기자is@hanmail.net

무주군,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시름 달랜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인한 연료물가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가운데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태양열·지열) 융·복합 사업이 이목을 끌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냉난방비 부담 해소를 위해 주택이나 공공기관, 상업 건물 등지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올해 총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적상면과 안성면, 부남면 지역 377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김동필 과장은 "사업 신청은 하졌지만 안타깝게도 기회를 잡지 못한 분들이 140가구나 된다"라며 "다행히도 무주군 에너지 기본조례가 2월 17일 통과가 돼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스안전장치(타이머록) 등 취약계층에 한정된 안전 관련 사업들도 일반가구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정무주 실현과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에 힘쓰며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심혈을 기울여 온 무주군은 2021년 무주읍 278가구(2021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에는 무풍·설천면 155가구(2022년)를 지원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무주읍 주민 김오 씨(72세)는 "요즘 난방비와 전기세 때문에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데 저희는 태양열 설비를 진즉에 설치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라며 "경제적 도움 말고도 환경에 일조를 하는 일인 만큼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202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정우/기자



성숙한 시민의식과 소통을 통한 남원시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선정

남원시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 최적지로 대산면 대곡리가 최종 선정됐다.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5차 회의를 남원시청에서 개최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1명과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후보지 4개소(산동면 부절리, 주천면 주천리, 대산면 대곡리, 대산면 수덕리)를 직접 현지 방문하는 등 입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심의한 결과 대산면 대곡리를 1순위, 주천면 2순위, 대산면 수덕리를 3순위, 산동면을 4순위로 결정했다.

또한, 1순위 후보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떠한 사유로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2순위, 3순위, 4순위 후보지와 순차적으로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앞서 시에서는 2021년 12월부터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각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지역이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23개 읍면동 단위 주민설명회를 통해 2030년 부가 생활폐기물 적체량을 금지하는 정부 정책에 따른 소각시설 확보의 시급성



을 알리고, 타 시군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 등 소각시설에 대한 긍정적 시민 인식 제고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총 7개소에서 입지 유치 희망을 신청했다.

7개 신청지역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와 용역사의 심의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난해 12월 입지 후보지 4개소를 선정했으며, 4개소 마을별 순회를 통해 혐오·기피 시설이었던 소각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동의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입지 최적지를 선정했다.

이남출/기자

'23년 신규 사업 추진으로 군산시 산업 경쟁력 강화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구축, 해양 무인시스템 통합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 슈퍼커패시터

군산시는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올해 다양한 신규 사업 추진을 계획 중으로, 관내 중소·중견 기업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관내 자동차 산업 제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12억원(국137, 도18, 시42, 민자15)을 2026년까지 투입하여 미래형 상용모빌리티와 자율주행차의 스마트센터 성능평가를 위한 기업지원센터 구축, 기술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EV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업생산제품에 대한 실증을 통해 원가절감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해양수산부 주관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시험평가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참여, 총 사업비 250억원(국 150, 도 25, 시 25, 민자 50)

규모로 2023. 4.~ 2027. 12월까지 새만금 방조제 내측 일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무인 해양기(무인 수상정, 무인잠수정 등) 혹은 장치의 성능 측정 및 시험평가 기술개발, 해상 실증 시험장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 사업 추진에 따라 수중 건설로봇을 포함한 국산 해양 무인시스템 개발 관련 기업들의 표준화된 실증플랫폼 구축으로 해양장비 기술개발, 국내 관련 산업 육성 및 세계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기업의 실증 비용이 대규모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슈퍼커패시터 융합 특수목적 모빌리티 산업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총 89억을 투입해 상용차, 특장차, 건설기계 등 고출력을 요구하는 특수목적 모빌리티의 전동화를 위한 슈퍼커패시터-이차전지-연료전지 융합핵 개발·검증을 위해

혁신자원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슈퍼커패시터(고용량축전지)는 이차전지 대비 고출력 구현 및 고속 충전·방전이 가능하고 저온에서도 성능이 우수하여 고출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로 본사업을 통해 특수 목적 모빌리티 산업과 슈퍼커패시터-이차전지 등 에너지 산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전후방 기업간 연계가 촉진되고 지역 산업의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에서는 "23년도 신규 추진 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대개조사 및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의 일환으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및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공모도 준비 중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김제시, 2023년도 제1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개최

김제시는 지난 10일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하수도 요금 동결 및 학생 시내버스 요금 인하를 위한 안전의식과 물가상승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도 제1회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김제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제시 물가와 관련된 기관 단체장들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됐으며, 관내 농업, 축협, 수협 조합장을 비롯하여 외식업협회,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2023년도에 30%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특별감면 조항을 신설, 하수도 요금을 30% 감면시킬 수 있는

안건과 학생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없애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학생요금 500원에서 100원으로 감면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외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시에서 공공요금 감면과 동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 상권의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시민들과 지역상권의 자발적인 물가안정 협조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원자재비, 식료품비 등 상승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감면을 실시해 물가안정 기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정현을 익산시장과 함께하는 '주민과의 대화' 대장정 돌입

정현을 익산시장의 직접 민생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장, '주민과의 대화'가 본격화된다.

정 시장은 오는 14일 왕궁면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3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해보다 소통을 강화하고 개선된 방식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

우선 전문 사회자를 초청해 토크쇼를 진행하며 정현을 시장의 보다 친밀적인 면모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각 읍면동의 이색사업 청취, 우리동네 주요현안 대담 등 다수의 주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이거나 민원 해결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경로당이나 주요 현안이 있는 마을, 사업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나가는 민원해결사의 모습도 변함없이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우리동네

행복버스도 정현을 시장과 함께 출동을 방문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장, '주민과의 대화'가 본격화된다.

정현을 시장은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는 시정을 운영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다채롭고 내실있는 주민과의 대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알파세대 사로잡은 순천만잡월드 우주체험관 미래 우주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체험 예약 인기

순천만잡월드 청소년체험관 우주공학자 체험이 어린이,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인기 체험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순천만잡월드 청소년체험관 입장객 중 30% 이상이 우주공학자 체험을 선택했으며, 특히 6월 21일 누리호발사 성공 직후 우주공학자 체험선택 비율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우주공학자를 꿈꾸는 미래 인재들의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잡월드 우주공학자 체험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체험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하여 더 많은 대한민국 우주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순천시는 우주 산

업 육성, 관련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어린이, 청소년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순천만잡월드 우주공학자 체험관은 발사 전 3단계 점검 및 발사과정 등을 체험하는 미션수행 프로그램과 발사체 모형 조립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한국형 발사체 탐구 등 프로그램 전문성을 높여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누리호발사 성공 1주년에 맞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초청 특강 프로그램 등 대한민국 우주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도 진행 할 예정이다.

김병수/기자



광산구 3.8 세계 여성의 날, 시민축제로 빛났다



광주 광산구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광산여성이 외치다!'를 주제로 진행한 기념주간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다양한 주제의 참여로 시민적 연대와 공감을 끌어낸 새로운 성평등 축제의 장이 막을 내린 것. 광산구는 세계 여성의 날의 가치와 의미를 높이며 여성이 존중받고,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기념주간을 운영했다.

이에 마을, 시민 주도로 여성의 인권, 노동, 문화, 기후위기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성평등 행사'가 광산구 곳곳에서 펼쳐졌다.

지난 6일 수완동에서 '엄마' 또는 '여성리더'로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여자의 길, 그들에게 듣는다' 행사를 시작으로 여성친화기업 현장 방문, '당신의 3월8일 알려주세요' 사회관계망서비스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특히, 8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500여 명의 시민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성평등 인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 8명에 대한 표창, 여러 단체·기관의 연대의 메시지 공유에 이어 전체 참여자들이 함께 '상생하는 성평등 광산' 실현을 다짐하는 보랏빛 물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보라색은 1900년대 여성 참정권 투쟁의 상징색이자 '정의 존엄'을 의미한다. 본 행사에 앞서 청년 댄스팀 '일브로(ILL BRO)'는 영화 '서프러제트'를 재해석한 멋진 공연으로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기념식 후에는 제13회 광주여성영화제 폐막작 '양림동 소녀'를 함께 관람하고, 김재희 광주여성영화제 대표의 사회로 작품을 제작한 임영희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송정1동, 첨단1동, 신창동 등 마을 곳곳에서도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인권 OX 퀴즈, 그림책 전시, 성평등 그림책 북콘서트 등 문화행사가 열렸다.

광산구 이주여성들은 '방탄이주여성단'을 결성, 새 활용을 직접 체험하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기후행동'을 벌였다.

또 광산구는 1908년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빵과 장미를 전 직원과 나누며 성평등 인식의 중요성을 알렸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공직자 200여 명이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영화 '서프러제트'를 시청하고, 성평등 인식 증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되새겼다.

올해 처음 범시민적 축제로 세계 여성의 날을 기린 광산구는 폭넓은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별영향평가 확대, 주민 대상 찾아가는 교육 확대 등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성평등은 모두가 다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민선8기 핵심 가치인 상생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구정의 지향점을 성평등에 두고 차별과 편견 없이 모두가 공정하고 동등하게 권리를 누리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한우고기 소비 촉진행사 팔 걷어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10일 오후 광양시 다압면 광양매화마을에서 열린 한우고기 소비촉진 행사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양매화축제 현장서 시식·할인판매 행사 참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제22회 광양매화축제 현장에서 추진 중인 한우고기 소비 촉진 행사에 참여,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한우농가 돕기에 직접 나섰다.

이날 행사는 김영록 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지역 축협장, 한우협회, 한우농가 등이 참여해 전남산 명품 한우를 홍보하고 시식과 할인판매 등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한우 사육 규모 증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연중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사료 구매자금 무이자 지원과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 사업 등 사육농가 경영 안

정을 지원한다. 또 한우 암소 자육 감축, 전남도품한우 브랜드 육성, 한우고기 수출 등 한우 사육 두수 적정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대대적인 한우고기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연중 온라인 판매 등 할인행사, 유통단계 축소와 직거래 판매 활성화, 지역 축제 행사와 연계한 시식 및 할인판매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최근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한우 산지 가격이 하락해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범국민적 한우고기 소비 확대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며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알뜰하게 구매하도록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장흥군, 845억 원 늘어난 '2023년 1회 추경예산' 편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보,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집중

장흥군은 지난 8일 장흥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5,966억 원으로 확대된 '2023년 1회 추경예산'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장흥군에서 제출한 원안이 가결된 것으로, 본예산 5,120억 원의 16.52%(845억 원)가 늘어난 금액이다.

중액된 예산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저출산 고령화 인구 대응 사업이 반영됐다.

연초 읍면 순방을 통한 주민건의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도 우선 편성됐다.

군은 이번 추경예산을 두고 민선8기 주요 현안사업과 주민 불편 해소 대책 북콘서트 등 문화행사가 열렸다.

주요 사업은 힐링 문흥 가축전환환경 조성 27억 원, 장흥군 여흥 두드

림센터 조성 20억 원, 중흥초 청년자립학교 조성 22억 원,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18억 원, 우드랜드 야간경관조성사업 6억 원, 지능형 CCTV 설치 4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6억 원, 장흥형 지역활력 특성화사업 17억 원 등이다.

특히, 관광객 500만명 달성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확보에 약 150억 원을 할애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주민안전문제 및 생활불편 관련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추경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되면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2023 화순 고인돌 축제' 40여일 앞으로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고인돌 유적지 전역(도곡면 효산리, 춘양면 대신리)에서 개최하는 '2023 화순 고인돌 축제'가 4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번 축제는 화순의 자랑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의 역사적 가치를 꽃피고 함께 재조명하여 전남 대표축제를 넘어 전국 대표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축제 장소를 남산 공원에서 고인돌 유적지로 옮겨 개최한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선사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봄꽃의 대명사인 유채꽃을 중심으로 크리산세뭇, 수선화, 튼질, 야생화 등을 고인돌 유적지 곳곳에 식재하느라 매일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초화 19만주 등으로 제작한 조형물 24종 113점이 이색정월촌, 화순명품촌, 청동기화순국보촌 등 3개 테마로 축제장 곳곳에 전시되어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는 공연, 전시, 체험, 판매 등 40여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고인돌 유적지 내에서 다양하게 운영되며, 공식행사 중 하나인 개막식은 4월 21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화순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다.

또 다른 공식행사로 영국, 인도, 필리핀에서 초청된 국외 학술연사 3명을 포함한 12명이 고인돌 유적지의 관광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4월 22일 토요일 도곡 원네스 스파리조트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이밖에도 4월 29일 토요일에는 세계거석테마파크에서 젊은 관광객들에게 고인돌 유적지를 홍보하고 이번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EDM 페스티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선8기 군정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만큼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화순군에서는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구북구 군수 주관으로 모든 실과 소장 및 도곡면장, 춘양면장이 축제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고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의 주제가 '봄꽃과 함께 떠나는 5천년의 시간 여행'인 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을 보유한 화순군 유적지에서 선사 시대의 역사적 가치를 경험하고 동시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축제를 만들어 사계절마다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이번 축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윤경호/기자

나주시, 2023나눔 캠페인 '우수市' ... 전년 대비 132% 증가

각계각층 온정 손길 5억6200여만원 모금 ...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패 수여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3년 나눔 캠페인' 결과 전년 대비 약 132% 증가한 5억6200여만원을 모금했다.

나주시는 캠페인 '우수市'로 선정,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최근 감사패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캠페인 모금액은 5억6천2백51만원으로 전년도 4억2천5백268만원 대비 약 132%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나주'라는 자제 슬로건 아래 지난 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각계각층 시민과 공공기관 임직원, 시청 직원 등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현금, 현물 기탁 동참이 이어지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결실을 맺었다.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위기가정 긴급지원, 주거환경개



선사업, 사회적 약자 돌봄, 교육·자립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을 자발적으로 실천해준 각계각층 시민들의 나눔에

감사드립니다"며 "함께하는 공동체, 지속가능한 나주를 위한 나눔 문화 확산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해남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확대 지원

해남군은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확대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은 인증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심사관리비, 잔류농약검사비 등 인증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작목반, 법인)를 대상

로 한다.

군은 올해부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인증의 경우 인증비용을 지원 한 도액내에서 전액 100% 지원하며, 잔류농약검사비도 검사품목 확대에 따라 1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확대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증을 받은 후 신청서, 인증서 사본, 인증비 납부증빙서,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친

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경영비절감과 농가 소득 증대에 더 많은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유기농을 포함해 친환경 인증면적 4,417ha로 전국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선애/기자



충남도, 행정과 현장 잇는 민관농정협의체 출범

10일 '충남 쉐농위원회' 본회의 개최...지방 농정 역량 강화 '박차'

충남도 농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이끌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관농정협의체 '충남 쉐(SSEn)농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도는 10일 공주 아트센터고마에서 김태흠 지사와 위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충남 쉐농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위원장 선출 및 위촉장 전달, 민선 8기 충남 농정 보고, 발전 방안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쉐농위원회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방 농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농정협의체로, 명칭은 농업의 산업화 실현 의지를 담아 △지속성(Sustainable) △스마트(Smart) △가능성(Enable)의 첫 자음을 결합한 쉐(SSEn)농위원회로 선정했다.

주요 기능은 민선 8기 농정 전반의 정책 자문 및 정책 대안 제시 등이며,

△청년인력 △스마트농업 △임산업 △축산업 △유통소비 △농업기술 △농촌공간 등 7개 분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도와 도의회, 농업인단체, 관계기관, 연구계, 학계,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35명이며, 분과위원은 분과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지사과 함께 위원회를 이끌 민간위원장으로 대통령 소속 농업·농어·농촌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아 현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김창길 전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특임교수를 선출했다.

위촉직 임기는 내년 12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쉐농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농정 싱크 탱크(연구 조직)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농작물을 잘 키워려면 객도(새 흙 넣기)하고 지력을 높여줘야 하는 것처럼 농업·농촌의 자생력을 잃게 한 정책은 같아졌고 우



리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라면서 "쉐농위원회가 충남,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을 점검하고 우리 농정이 길기를 바르게 제시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농촌의 현실이 어려운 만큼 강력한 추진력으로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갈 것"이라며 "이러한 충남의 의지와 노력에 쉐농위원회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최정근기자

아산시 2023년 상반기 열린 간담회 성료... 소통·공감 행정 강화

박경귀 시장, 17개 읍면동서 총 298건 시민 건의 청취



2023년 아산시 상반기 열린 간담회가 3월 2일 인주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열린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지난해 처음 시작됐으며, 차별화된 형식과 구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산시는 올해 열린 간담회를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월 8일 신창면을 시작으로 아산시 17개 전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상반기 열린 간담회는 지역 기관·단체장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읍면동별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해 열린 간담회에서 접수된 지역별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과 처리계획, 불가 사유 등을 설명했다.

박경귀 시장은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안전상의 이유나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했다."

시는 하반기에는 아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건의 사항과 생활민원을 전달하는 자리로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상반기 읍면동별 열린간담회에서 새로게 298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가장 많은 건의가 접수된 지역은 온양3동(27건)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송악면(9건)이었다.

도로 편익 시설 확대, 공공 화장실 개방, CCTV 설치 확대 제한, 미세먼지·야취·소음 피해 방지대책,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생활민원이나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건의 및 민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주차장 확충,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 신축 요청, 대중교통망 확대, 자전거길 및 등산로 정비 등에 대한 요청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와 현재 아산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현장 문답과 서면으로 접수된 모든 시민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가 충분히 검토한 뒤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 불편 사항 중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한 뒤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하고, 추경 등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거나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친 박경귀 시장은 "나의 문제가 아닌 마을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이어 "모든 건의에 선물 같은 해결책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한 마음이 더 크지만,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조금이나마 서로의 사정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계속 시민 여러분의 소통하면서 주민 고충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무엇보다 모든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집행부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는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해 간담회를 찾아 주신 지역 시·도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시민과 가진 귀한 소통의 시간이 도정과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읍면동 열린 간담회를 통해 상시 소통 채널을 바라는 시민 요구를 받아들여 시장과 시민 만남의 날인 '아산형통'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월 1회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현재 월 2회로 운영 중이며,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월 1회는 '찾아가는 아산형통'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또, 기존 직소민원팀을 확대해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시민 소통 채널 다각화와 소통 중심 시정에 힘쓰고 있다.

김원호기자

양양군, 2023년 학습서평 동아리 지원 공모

양양군이 10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학습서평 동아리 15개 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습서평 동아리는 자기 주도적 학습분위기 조성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이웃과 나누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동아리이다.

군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학습서평 동아리 15개를 선정해 주민 주도의 자율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동아리로 선정되면, 재능기부를 위한 활동비와 역량강화를 위한 강사비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역 행사 등에서 재능나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양양에서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활동을 하는 성인 학습자 7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구성원의 60% 이상이 양양군민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단, 형사 교과과정(대학교 포함) 소속의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 영리 및 특정 종교·정치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지역사회 환원 활동이 불가능한 단순 친목(동창회 등) 동아리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동아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한 후, 동아리 소개서, 사업계획서, 봉사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양양군 교육체육과를 방문하거나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 계획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 ▲ 활동계획 적절성 ▲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이달 중 지원 대상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학습서평 동아리 지원을 통해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켜갈 계획"이라며, "배움과 나눔을 통해 변화를 실천하는 평생학습 동아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동해시,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총력'

2023년 5개 분야 12개 사업 4,606백만원 투입,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동해시가 올해 4,60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장경쟁 및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4,60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5개분야 12개 사업인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활성화 사업, 안전관리사업,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강원도의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되어 3,871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시설현대화 사업에 3,793백만원을 투입해 동쪽바다중앙시장 아케이드 2구간 정비사업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영활성화 사업에 78백만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에 배송 매니저를 배치하고 마케팅 행사를 지원한다.

또한,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위하여 375백만원을 투입, 단속건물형 전통시장은 화재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에 대하여는 공제료를 지원하며, 전통시장 지킴이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경영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북평민속5일장 어물전 250m 구간에 천연미생물 발효액을 활용한 악취저감사업을 실시하여 악취 및 해충을 제거에 나선다.

그동안 시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올해는 전통시장 상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도록 특색있는 사업, 행사, 버스킹 공연, 깜짝세일 등 다양한 이벤트를 자체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에 동해남부재래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목호시장 아케이드 정비 등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상인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했다.

강성규 경제관광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조성으로 상인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고, 시장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를 통하여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철원군, 지방소멸대응 전략사업 추진단 워크숍 성료



주민수요 중심 인구활력 사업 발굴 및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달 27일 발족된 철원군 지방소멸대응 전략사업 추진단 워크숍이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한국어성수리원(강릉)에서 개최됐다.

추진단은 총 14개 팀 88명으로 구성됐으며, 철원군 공직자와 민간 외부위원(해당 분야 전문가, 군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위한 지역활력 사업을 발굴·추진하게 된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박경우 철원군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특강, 지방소멸 대응 정부 정책 안내,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사례 발표 등의 과정으로 추진됐으며, 사업 계획 보강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및 컨설팅(자문)이 진행됐다.

향후 추진단은 발족식을 시작으로 사업 발굴 보고회(수시), 최종 평가(서면·대면 발표)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5월 최종 3~4개의 사업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실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세나기자

박경우 철원군 부군수는 "관내 민관을 넘어 타기관(행정청, 행정안전부, 강원연구원, 한림대학교 등)까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한 뜻으로 모인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주민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유관기관이 연계협력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활력타운 등을 비롯한 지역 주도 인구활력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철원군 차원에서 역량 강화 교육과 행정적 지원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석 청주시장, 상당구 주민과의 대화 성황리에 열려

이범석 청주시장이 상당구를 시작으로 주민과의 소통행보에 나섰다. 청주시가 9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농심관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상당구 주민 130여명이 참석했다. 구청별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민선8기 청주시정의 초심인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 결의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초청해 2시간 동안 시정 관련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됐던 내용의 추진 사항과 올해 청주시 주요 시정계획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주민 불편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즉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민선 8기 청주시정의 초심인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 결의로 가까이 가고자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공감해 청주가 더 좋게 변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이범석 청주시장은 "민선 8기 청주시정의 초심인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 결의로 가까이 가고자 주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공감해 청주가 더 좋게 변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양양군 학습서평 동아리 지원사업

양양군 학습서평 동아리 모집합니다

| 2023.03.10(화) - 03.24(금) |

- 모집대상** 7명 이상으로 구성된 학습서평 동아리 팀
- 모집기간** 3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 지원대상** 양양군민 (양양군민 60% 이상)
- 지원내역** 활동비, 강사비, 책가게, 용품, 행사 비용 등
- 신청방법**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참조

문의 : 7032-4791, 4792, 4793, 4794 (양양군 교육체육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소비자를 현혹해 액상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 점검

천마·녹용 추출물 등 원료 함량 미표시·거짓 표시 제품 판매 등 12개 업체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 원재료명과 그 함량 외에도 고형분·배합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했으며,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생 녹용' 등으로만 표시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은 각

각 ①홍도라지 약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②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③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원가가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4,000원~2만 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고,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 당 최대 36만원, 약 321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홍보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시고 아울러 봄나들이 관광을 빙자해 식품업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앱'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 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성지아/기자

익산시 가축분뇨 무단배출 엄정 대응 나선다

익산시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정 대응해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9일 시는 환경감시원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왕궁면 주교제 인근 농수모에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양돈농가 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분뇨 무단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왕궁지역 환경감시원과 민관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왔으며 적발 당일에도 잠복 근무를 실시해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양돈농가는 지난 1일과 4일 이틀 간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1톤 용량 분뇨탱크에 담아 트럭으로 이동해 약4km 떨어진 주교제 인근 공공수역에 수차에 걸쳐 불법 배출한 혐의이다.

시는 배출된 가축분뇨를 정화하기 위해 3천8백만원을 투입해 약 785톤의 오염물질을 수거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상습적인 가축분뇨 무단배출 지역은 CCTV를 설치하는 등 무단투기 사전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경북도, 마스크 해제 '첫봄(春)' 식중독 주의 강조

봄 나들이 철, 야외활동 시 개인위생, 식품 보관·섭취 주의 당부

경북도는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와 함께 야외활동이 많아진 올 봄철에는 식중독이 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18~'22년) 도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월 봄철 식중독 발생이 24건(전체 91건)이며, 전체 식중독 환자의 12.5%가 이 기간에 발생했다.

이는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낮 기온은 높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 탓에 음식물 관리에 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장기간 음식물을 상온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유지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로 따라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날 전망으로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봄철에는 주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 식중독(염기성 세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으로 해당 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해당 균이 소장에서 증식하며 독소를 만들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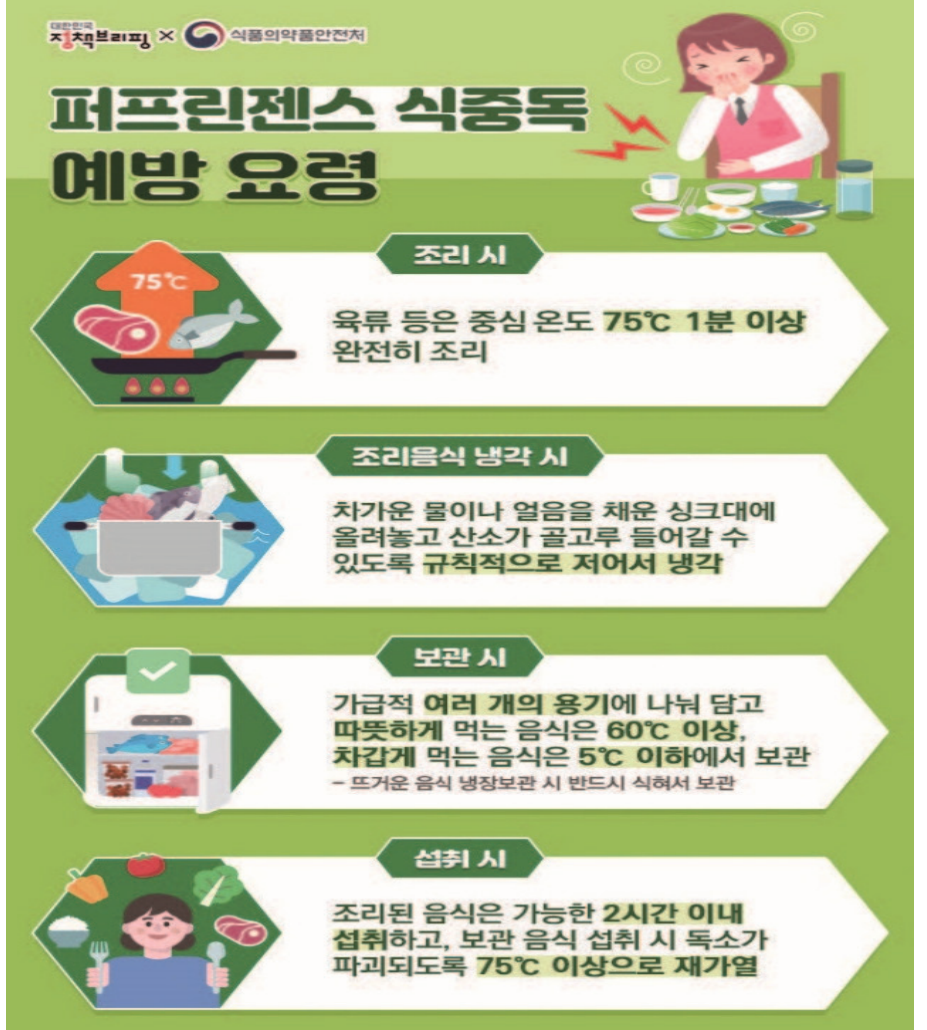
사, 복통 등의 증세를 나타냄) 발생률이 높으며, 이 균은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드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끓였던 경우라도 다시 증식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조리된 식품의 보관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봄철 나들이를 할 경우 조리된 도시락은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보관·운반하고, 김밥 등 조리식품은 2시간 이내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육류와 수산물, 어패류는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75℃(어패류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한편, 경북도는 봄 나들이 철 대비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더 힘쓰겠다"며, "평소에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등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생활화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울진해양경찰,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시행

건전한 해루질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단속 병행

울진해양경찰서는 봄철 해루질객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달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5주간(예고 기간 1주)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진해양경찰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자원관리법' 적용을 받고, 사용이 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 어장 내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여 절도죄로 신고 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울진해양 관계자는 "해루질이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2022년 특별 단속에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등 총 16건 18명을 검거했다.

장문화/기자

대전시,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 실시

3. 27. ~ 4. 17. 집중단속... 도로시설물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을 나선다.

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 동안 '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또한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 등 방면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속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꾸



어가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횡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박제화 본부

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건설업계 스스로 준법 운영을 해야 한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운행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과적차량 단속에서 위반차량 29대를 적발하고, 약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원호/기자

시흥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전세사기 근절 철저

시흥시는 3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전세사기 등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양동전세)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기가 많이 일어난 지역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집중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자격 중개행위 ▲고용인 미신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전세사기·시세정보 등에 대한 성실 확인·설명 이행여부 ▲강동전세 위험주택 알선 또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부추기거나 묵인·가담하는 사례 등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중개의뢰인에게 보다 공적하고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환기시켜 건전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신우용/기자

거창군,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거창군은 인위적인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딸감을 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봄철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매년 봄과 가을철 두 차례 이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수목 이식이 많은 시기에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딸감 보유 여부 등이며, 계도단속 이후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거창군은 소나무 고사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일대에 나무주사를 이용한 방제 작업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나무 무단이동단속반을 통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단속에 힘쓰고 있다.

장병철/기자



대구 북구의회 차대식 의장 인터뷰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은 1957년 경남 합천출신으로 2014년 7월부터 제7대, 8대, 9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원에 당선될 정도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3선 의원으로 대구시 북구의회를 이끌어 온지 어느덧 8개월이 훌쩍 넘었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의 정치인으로 국민의힘 의원으로 널리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는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북구 집행부와 상호 협의하에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평상시와 달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매서운 눈으로 업무를 살펴 지난 1월 16일 민주평등자문회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

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그는 사무실 보다 늘상, 지역주민들이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의회활동을 펼쳐 각계각층의 구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원들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 정책을 반영하는 등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펼쳐 이 시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회상을 갖추고 있는 분으로 평평이 나왔다.

이러한 그의 소통과 협력, 상생의 의회 운영은 비록 8개월이지만 동료 의원들은 물론, 공직자,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들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그는 지난 해 북구의회 의장에 당선된 밝힌 소감에서 "9대 의회는 구

민이 부여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는데 두고 역사적 사명감으로 의원 한 분한분이 지혜를 모아 2년 임기 동안은 구민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바쳐 최선을 다하는게 중요하다"면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북구를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협치와 소통, 상생으로 기본과 원칙을 지킨 가운데,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진은 집권 8개월을 넘어 힘차게 향해 가고 있는 대구시 북구의회 의장인 차대식호 함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구의회의 청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 지난 1월 16일, 민주평등자문회의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해 -
- 늘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치 철학 펼쳐
- 차대식 의장 "선우후락(先憂後樂)의 마음가짐으로 구민을 섬기겠다"

<차대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과의 인터뷰>

윤근수 총괄본부장 : 안녕하세요? 문화매일신문의 경북·대구 총괄본부장 윤근수 기자입니다.

코로나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구민들로부터 무한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북구의회를 이끌어 오고 계시는 의장님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먼저 구민여러분께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북구의회 차대식 의장 : 네! 안녕하세요?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입니다. 45만 구민 여러분!

올 계묘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의원들은 오로지 구민여러분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열정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오니 믿고 맡겨 주시고, 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 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Q : 윤근수 대구·경북총괄본부장, A :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으로 말씀하며, 존칭은 생략)

Q : 제9대 북구의회가 출범한지 8개월 흘렀다. 북구의회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A : 구의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2022년 7월 제27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에 걸쳐 41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건의안 5건, 결의안 3건 등을 처리했다. 집행부에 대한 구정 질문 4건, 5분자유발언은 13건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구민들 일 상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갈지 고민해왔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토대로 다양한 민생현안을 처리했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북구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한 의회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Q : 의장으로서 소감 한마디와 향후 북구의회를 이끌어 갈 각오와 복안을 말씀해 달라.

A :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3선의 영예를 얻었고, 의회를 대표하는 제9대 전반기 의회 의장에 선출될 수 있었지만,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세계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의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를 느끼고 있다. 당선이라는 '기쁨'은 잠시지만, 북구 의회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다. 항상 구민들을 최우선

으로 낮은 자세로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 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는 의장의 소임을 다하겠다.

Q : 집행부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 등 구의회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안은?

A : 배양식 북구청장이 3선을 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기에 그가 펼치는 정책 스타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북구의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양 기관이 협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꼽을 수 있다. 하나, 견제와 감시에만 너무 치중하게 되면 자칫 대립 관계로만 나아갈 수 있기에, 집행부와 업무 연관화나 토론회 등을 통해 함께 소통하여 좋은 정책을 제안 하고, 이를 통해 서로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또 노력해 나가겠다.

Q : 구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과 극대화 방안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A :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소이다. 사실,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절실했다.

이제 인사권이 독립된 만큼 공무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지방의회 고유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지방의회 독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치법규를 꼼꼼히 정비 하고,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중심의 완전한 자치분권을 확립해 나가겠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인사권 독립은 이뤄졌지만, 사무국 조직을 건실하게 키울 수 있는 예산과 조직에 대한 권한이 여전히 구청장에게 있다.

그런가닭에 실질적으로 의회 운영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라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 않겠나?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 지방정부에 종속된 권한의 단계적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구의회가 안고 있는 지역 최대 현안인 금호강 르네상스와 도심융합특구 그리고 전통시장인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에 대한 역점사업에 대해 어떻게 기여를 하실 것인지?

A : 현재 북구는 도심융합 특구와 그 주변 자원인 금호위터폴리스, 엑스코, 금호강 등을 연계

해 개발하고, 전통시장인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를 통해 대구 경제의 중심으로도 도약을 준비

하고 있다. 앞서 말한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대구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집행부가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북구의회는 감시도 해야 하지만, 협력할 일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없다. 함께 도와가며 나아가야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 논란이다.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엑스코 없는 엑스코선, 경북대 없는 경북대역'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북구의회가 최근 결의문까지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북구의회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말씀해 달라.

A : 지금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엑스코선 노선과 관련, 많은 지역민들은 주민 편의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길 좋속계획이라고 평가한다. 경북대 인근 정거장의 경우, 학생들의 이용 편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문 역할을 하는 경대북문의 상권 활

성화 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차세대 대구경제 핵심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이스 산업의 전초기지인 엑스코 인근 정거장도 유동단지 종사자와 이용자/엑스코 활성화에는 많이 미흡하다. 북구의회는 최근 결의문을 내고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에 도시철도 엑스코선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2월 27일 지역민들 공청회에서 노선 변경을 요구

하는 북구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셌다. 북구의회는 결의문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Q : 지금 갈수록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전국 통계에 따르면,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 인구가 2070년에는 3800만명, 2700년에는 1700만명으로 감소해 대한민국이 소멸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 북구청도 인구감소는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인구증가를 위해 과감한 추진으로 밀어붙일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달라.

A :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인구감소는 지방소멸,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질 만큼 더 심각하다. 여기에 수도권 쏠림 현상에 의한 사회적 인구

감소 또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북구 의회는 지역 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종합전략을 마련하도록 집행부에 관련 정책 발굴을 유도하겠다. 기존 구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볼겠다.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따져 보고, 관련 부서 업무 완성도 등도 들여다볼겠다. 특히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부와 함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Q : 끝으로 구민들에게 한 말씀해 달라.

A :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긴다는 선우후락(先憂後樂)의 마음가짐으로 저를 포함한 북구의원들은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구민을 섬기고 최우선하는 감동 의정을 실현해 나가겠다. 또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

하겠다.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로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오늘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지역주민 한분이 지나가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얘기를 끝까지 귀기울이면서 다 듣고는 즉각 이에 대해 알아보는 등, 그가 얼마나 북구 주민들의 애환과 애로를 잘 알고 있었으면 지역 구민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민원을 얘기할 수 있을까?를 엿보면서, 그의 지역구민과의 소통의 정지가 참 अच्छ고 희망의 정치로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참 느낌이 좋았다.

이처럼, 대구시 북구의회는 20명 의원들이 차대식 의장을 중심으로 저마다 지역구를 누비면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 북구를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구의 두 축인 북구청과 북구의회가 상호 협력과 상생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야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다.

결론적으로, 북구의회의 힘과 지혜와 용기를 모아 대구시 북구청과 손을 맞잡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북구의회의 무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인터뷰간 차대식북구의회 의장의 시원시원한 거침없는 하이킥 답변을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정치인생이 보다 알차게 열매를 맺어 북구의회, 대구시를 넘어 대한민국에 크게 쓰임 받는 「차대식 리더십」이 펼쳐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매경미디어그룹 2023 대한민국 최고 경영대상 수상

- 청렴도 1등급, 예산 2조원 돌입, 첨단과학 혁신도시 구축 등 경주시 위상 높이며 - SMR국가산단·2025 APEC 정상회의 반드시 유치 등 지역발전 밑거름 되도록 최선



경주시가 지난 1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매경미디어그룹 주최 2023년 제8회 대한민국 최고 경영대상 '미래혁신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매경미디어그룹에서 주최하고 산업부, 과기부가 후원하는 경영대상은 뛰어난 행정전략과 과감한 도전으로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과 기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예산 2조원 시대 돌입 ▲차세대 첨단과학 혁신도시 조성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기반 구축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2년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5개 기초 자치단체 시·부·군 중 종합 1등급을 획득했다. 시장관사 폐지, 사랑방 좌담회, 청렴 메시지 전파 등 취약분야에 대한 내·외부 소통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을 쏟은 결과이다.

또 70건 8407억 원의 역대 최대 정부 공모사업 유치, 국·도비 1조 103억 확보, 자동차산업 등 우량강소기업 유치, 지역발전 속원사업 확충 등 가시적인 성과로 경주시 살림살이가 2조원 시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감포읍 일원에 조성 중인 SMR 1단계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과 연계해 SMR 국가산단을 유치해 소형모듈원자로 제조 및 소재 부품, 장비산업 육성과 집적화, 혁신형 I-SMR 수출모델 공급망 구축 등 미래 소형원전 전초기지를 구축한다. 더불어 지난 3년간 900억 규모의 산업부 공모사업에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 고도화 센터 ▲탄소 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e-모빌리티 배터리 통합관제 허브 센터가 들어설 외동 구어2산단을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로 명명하고 오는 4월을 시작으로 내년 10월까지 차례로 완공해 미래 차 혁신 글로벌 모빌리티 소재·부품 전진기지를 구축한다.

윤태용/기자



경북도, 탄소산업3대 핵심소재(탄소섬유, 인조흑연, 나노탄소)기술개발 및 상용화본격 추진

이달히 경제부지사 주재, 경상북도 탄소산업육성위원회 개최

경북도는 10일 구미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에서 2023년 제1회 탄소산업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이달히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3명(당연직 2, 위촉직 11)의 탄소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탄소산업육성위원회는 경상북도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정책적 지원 등 탄소산업분야의 경북도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경북도는 영천·경산의 1300여개 자동차 부품기업, 구미·칠곡의 520여개 스마트기기 기업, 포항·경주의 900여개 철강기업 등 탄소 소재 수요산업군의 최대 분포지로, 탄소산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왔다. 그동안 경북도는 2017년부터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17~'22, 693억원)을 시작으로 탄소성형부품 설계해석 및 상용화 기반구축('18~'22, 497억원),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기반구축('21~'23, 178억원) 사업을 통해 개발제품 기획 단계

의 탄소복합재 설계 해석 기술 지원부터 재생 탄소섬유 부품 제조 지원까지 전 공정의 기술 지원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했고, 또 다른 탄소소재인 인조흑연 부품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도 구축 중이다. 또 지역의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다양한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부족한 탄소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18~'27, 64억원)을 추진하는 등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R&D), 기업지원, 전문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는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경북도 탄소산업육성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3년 시행계획에 대해 참석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 경북도는 탄소복합재, 인조흑연 등 탄소소재 수요기업과 연계한 기술개발, 대학중점연구소를 통한 기술기반의 인재양성, 지역기업과 해외기관 간 공동 기술개발 지원 등 분야별 총 16개 과제를 추진했다. 반도체



이차전지부품용 인조흑연 테스트베드구축 공모 선정,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구축 국비 확보 등 총 6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국가 사업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년 시행계획은 지난 2021년 수립된 경상북도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22~'26)에 따른 2023년도 세부 추진계획으로, 5대 분야 총 23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계획했다.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한 경북형 탄소소재부품 기술 육성 △기업의 기술 상용화를 돕는 탄소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조성 △기술 기반의 인재와 기업을 양성하는 탄소기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경북분원 유치를 중심으로 경상북도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달히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탄소소재는 전기차·수소차, 도심항공 교통서비스, 발사체 노출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적용되는 핵심 소재"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우리 도는 대학, 기업 등 지역 수요를 중심으로 탄소산업 정책을 발굴·추진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탄소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경북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 2022년도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평가결과 '더현대 대구' 베스트 업체로 선정
- 지역업체 판로 확대 방안, 지역사회 공익활동 강화 등 논의 시간 가져
- 협의회 개최 후 3월 중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상생 실무위를 통해 협력 방안 구체화



대구시는 지난 10일(금), 산적청사에서 2022년도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유통업 상생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대구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 유통업체 지역기여도 실적 점검 대상인 대구신세계를 포함 8개사 * 26개 점포의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 및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역금융 이용, 지역제품 매입, 지역인력 고용, 지역사회 환원 등 10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더현대 대구'가 베스트(Best)업체로 선정됐으며, 최원형 시장이 대구시로부터 유통업 상생발전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더현대 대구'는 지역금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용역발주와 인세발주를 100%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등 다수의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지역상품 판로제공 및 특별한 자체사업(대구관광재단 협업 디저트 페어, 365리사이클 캠페인 등)

역시 최초로 시행했다"면서 "올해부터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지역 기여도를 적극 높여 나가면서 지역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협력 결속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3월 중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책임급들로 구성된 '대형마트-중소유통 상생실무위'를 개최해,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 간 새로운 상생협력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해남군, 공공배달앱 '먹깨비'특별할인 이벤트

해남군은 전남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를 10일부터 실시한다.

지난해 7월 출시해 운영 중인 먹깨비 배달앱은 가맹점은 가맹점 배달수수료 부담은 크게 낮추고, 소비자는 해남사랑상품권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내 먹깨비 앱으로 주문·결제해 해남군 이용자 한정으로 5,000원 할인쿠폰이 발행된다. 매주 금·토·일 1인 1회, 선착순 100명 한정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먹깨비 내 다른 할인 쿠폰과 중복사용이 가능하며, 모든 카테고리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 포장 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먹깨비 앱'을 내려받은 후 회원 가입하여 주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많은 소비자가 먹깨비에 가입하여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할인 쿠폰 제공 이벤트 혜택도 받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에도 동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선애/기자

남원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2개팀 선정 쾌거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함께하는 '20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협동조합 비너스없는점빵과 로템일자리센터 2개 팀이 선정됐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적문제 해결 ▲에비 사회적기업가를 발굴하여 창업 활동 지원 ▲(에비)사회적기업 진입을 목표로 하는 창업 지원사업으로 올해 전국에서 640팀, 전라북도 32개 팀을 선정했다.

이번 육성사업에 선정된 '협동조합 비너스없는점빵'은 기후 위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O-플라스틱, 자원순환 대안 물품을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운영하고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과 교육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또한 '로템일자리센터'는 지역 내 업체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과 외국



인 근로자 전문 청소년력 양성 및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창업팀이다.

육성사업 선정 창업팀에게는 사회적경제와 비즈니스모델의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1:1 상담 멘토링 등 성장지원 및 자원 연계, 최대 5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창업팀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경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경상북도로 기부해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풍성한 답례품은 덤으로!

기부지역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모든 시도 / 시군에 기부

기부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까지

- 기부혜택**
- ①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분은 16.5% 세액공제
 - ② 답례품 증정 • 기부액의 30% 범위 내 선택

기부방법 ①



고향사랑e음 시스템 접속

www.ilovegohyang.go.kr



가입

준비물
PC, 휴대폰



기부하기



위택스 결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답례품 선택

※ 위택스 사전가입 필수

기부방법 ②

NH농협 방문 신청



농협 방문 신청

준비물
신분증



신청서 작성



현장 결제

계좌이체
또는 현금



답례품 선택

※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모여진 기부금은 **도내 어려운 이웃 생계지원과 청소년 육성 등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집니다.

문의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 054-880-2836, 2838